

베드로는 자신의 첫 서신을 자신의 독자들에게 외부 세력의 적대감에 적절하게 반응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썼다. 그리고 그 다음 서신은 성도들을 잘못된 것과 부도덕으로 유혹할 수 있는 멸망케 할 이단 (2:1)인 거짓 교사들에 의해 야기된 내적인 대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베드로전서가 살아있는 말씀을 통한 거듭남을 말하고 있다면, 베드로 후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I. 제목

베드로의 두 번째 것 이란 제목으로 붙여졌는데 베드로가 쓴 두번째 서신이라는 의미로 베드로후서 라 부른다.

II. 저자와 기록연대

1) 저자: 사도 베드로이다. 비평주의 학자들이 베드로의 저자설을 부인한다. 하지만 (1) 베드로가 자신이 저자임을 밝힌다 (1:1). (2) 1:12-18 에서는 자신이 변화산의 증인임을 밝힌다. (3) 본서에는 베드로의 설교에 사용되었던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 (4) 3:1 의 둘째 편지는 첫 번째 편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기록연대는 베드로가 순교한 68 년 이전인 66-67 년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베드로후서의 주제와 문학적 구조

베드로 후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 배양(1 장), 거짓 교사들에 대한 책망(2 장),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3 장)이다. 거짓 교사들에 대한 베드로의 책망은 그들의 부도덕한 생활, 무익하고 파괴적인 가르침, 확실한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을 묘사하고 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베드로의 강조는 거룩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 촉진되었다. 주님의 재림에 비추어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을 읽는 독자들에게 거룩하고 흔들림 없으며 성장하는 삶을 살도록 권유하고 있다.

초점	그리스도인의 성품 배양		거짓 교사들에 대한 책망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	
관련구절	1:1	1:15	2:1	2:4	2:10	3:1	3:8
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	믿음의 근거	위험	멸망	묘사	말세에 있을 조롱	주의 날
주제	참된 예언		거짓 예언자들			예언: 주의 날	
	거룩		이단			소망	

IV. 베드로후서의 주제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이다. 로마의 핍박과 함께 새로운 문제 거리로 떠오른 이단들을 경계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 굳게 서서 성장할 것을 권면했다. 베드로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묘사하고 있다.

베드로후서의 기록목적은

- 1) 영지주의 등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기 위하여
- 2) 부도덕한 향락주의를 배격하기 위하여
- 3)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본서의 특징은 1) 거짓교사에 대한 경고이다. 베드로전서가 외적 핍박자인 로마의 박해를 언급하는데 비해, 본서는 교회의 내적 핍박자인 거짓 교사들을 경계했다. 2) 영적 지식을 강조한다. 가장 영향력 있는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를 반박하여 올바른 영적 지식을 갖출 것을 권고했다. 3) 유다서와 유사점이다. 거짓 선지자에 관한 경계에서 두 책의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

V. 베드로후서의 그리스도

- 1) 참된 영적 지식이 근원이신 그리스도
- 2)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VI. 핵심 단어, 핵심 절, 핵심 장

- 1) 핵심 단어: 주 예수를 아는 지식
- 2) 핵심 절 : 3:17-18
- 3) 핵심 장 : 1장